한국 근대 신문의 오너먼트

The Ornaments on South Korean Newspapers in Modern Age

이우용 Lee Wooyong

홍익대학교 석사과정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1. 서론
2. 연구 설계
   2.1. 연구 범위
   2.2. 연구 대상
3. 한국 근대 신문에 나타난 오너먼트의 시작(1883-1988년)
4. 다양한 오너먼트로 화려해지는 지면의 인상(1898-1920년)
5. 사진과 변화하는 강조의 대상(1920-1930년)
6. 근대 신문의 오너먼트와 그 가치

PP.138–151

엑스트라 아카이브 7 Extra Archive 7
학술대회 2부 Academic Conference Part 2

p-ISSN. 2765-2572
e-ISSN. 2765-7825

투고일 2023년 7월 8일
심사일 2023년 7월 11–25일
게재확정일 2023년 8월 1일

Received Date 8 July 2023
Reviewed Date 11-25 July 2023
Accepted Date 1 August 2023

요약

매체의 탄생과 기술의 진보가 만들어 내는 급격한 디자인 환경의 변화에 영향받은 수많은 사례가 있다. 웹은 언제 어디서든 최신 시각물을 손안에서 접하게 했고, 고도화된 화면 해상도는 점점 더 부드럽고 선명한 이미지 생산과 유통 환경을 제공했으며, 가변 글꼴 기술은 글자의 존재 형식에 관한 관념을 바꾸었다.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인쇄 기술의 유입과 신문이라는 특정 매체의 탄생 속에서 활발히 꽃을 피웠던 시각문화의 한 단면에 관한 아카이브 만들기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대규모 서양 근대인쇄술의 유입, 전문 인력의 유입과 함께 새로운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매체가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전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보기 힘든 화려하고 다양한 오너먼트 형식이 신문이라는 특정 매체에 집중적으로 등장했다. 이 프로젝트는 당시 어떤 종류의 오너먼트가 등장했고, 신문이라는 매체에서 이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또 어떻게 확장, 유통되었는지를 아카이빙함으로써 우리 근대 시각문화의 일면을 담당했던 오너먼트의 기록을 파헤친다.

Abstract

There are numerous cases influenced by the rapid changes in the design environment brought about by the birth of media and advancements in technology. The web allows us to access the latest visuals anytime, anywhere, and advanced screen resolutions provide a smoother and sharper imag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nvironment. Variable font technology has altered the notion of the existence form of letters. This project aims to create an archive about a facet of visual culture that flourished vigorously amid the influx of various printing technologies and the birth of newspaper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when everything was in turmoil—politics, society, economy, culture—a variety of media such as new newspapers and magazines emerged alongside the influx of large-scale Western modern printing and specialized manpower. During this process, ornamental forms, previously rare or unseen, emerged prominently within newspapers. This project delves into the records of the ornaments that were introduced during that time, their roles within the medium of newspapers, and how they expanded and were distributed, thus uncovering a part of our modern visual culture represented by the ornaments that played a role in the newspapers of that era.

1. 서론

조선 말기부터 일제강점기(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시대이다. 점차 거세지는 서양과 일본의 압박 속에 1876년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은 강제로 개항을 하고, 1897년부터 대한제국, 1910년부터 일제강점기가 시작된다. 개항으로 조선에 들어온 서양 근대인쇄술은 신문, 잡지와 같은 새로운 매체를 만들고, 기존 인쇄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새로운 기술의 유입으로 국가는 인쇄, 출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박문국을 설치(1883), 박문국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인『한성순보』를 창간(1883)한다. 민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인쇄소이며 출판사인 광인사(1884)가 설치,『충효경집주합벽(忠孝經集註合璧)』(1884),『농정신편(農政新編』(1885) 등과 같은 서적을 만드는 등 국가, 민간이 개항으로 인한 인쇄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인쇄 기술의 변화, 전문 인력의 유입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 외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그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보기 힘든 화려하고 다양한 오너먼트 형식이 등장했다. 이 연구는 당시 어떤 종류의 오너먼트가 등장했고, 신문이라는 매체에서 이들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으며, 또 어떤 변화를 거치며 사라졌는지를 수집, 분석하여 우리 근대 시각문화의 일면을 담당했던 오너먼트를 기록하려 한다.

2. 연구 설계

2.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강화도 조약(1876) 이후 근대 인쇄물에 사용된 오너먼트에 대한 연구로 시대 범위의 시작점을 강화도 조약인 1876년으로 한다. 강화도 조약 이후 1880년대『한성순보』(1883)와『한성주보』(1886)가 창간되고 1890년대『독립신문』(1896),『경성신문』(1898),『황성신문』(1898) 등 다양한 신문과 우리나라 최초의 잡지인『대조선독립협회회보』(1896)가 등장한다. 1897년 대한제국이 시작되고 일제 탄압이 심해짐에도『대한매일신보』(1904),『친목회보』(1905),『공립신보』(1906),『소년』(1908),『경남일보』(1909) 등 다양한 신문과 잡지가 발행된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후 1945년까지 일제 강점기 기간 동안 무단 통치기(1910년대), 문화 통치기(1920년대), 민족 말살 통치기(1930-1945)가 이루어진다. 1930년대 민족 말살 통치가 시작되며 수많은 신문과 잡지가 정지 혹은 폐간이 되고 안정적

출판을 도모할 수 있게 해주는 예약출판을 조선인에게는 금지하는 등 인쇄물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탄압이 극심해진다. 이런 정치·경제 배경으로 인해서인지 1930년대의 수집 가능한 인쇄물이 적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자료 수집을 하며 1920년대 말부터 오너먼트의 사용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 연구의 시대적 범위를 강화도 조약(1876년)부터 문화 통치기(1920년대)로 한정해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의 매체 범위는 신문으로 한정하여 진행한다. 이 연구의 시대 범위는 1876년부터 1929년으로 해당 시기의 대표적 인쇄물은 신문과 잡지이었다. 물론 당시 서적, 딱지본과 같은 단행본도 있었지만, "신문·잡지의 출현에 문학 시장이 이원화되고 단행본과는 전혀 다른 문학 텍스트가 생산·유통됨으로써 문학 시장의 크기는 한층 커질 수 있었다"[1], "신문·잡지를 통해 텍스트의 상업성·대중성뿐만 아니라 출판 허가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었다"[2]는 선행 연구 내용을 보아 당시의 신문과 잡지는 단행본보다 대중들에게 친숙하며 중요한 매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매체 중 신문은 표지와 내지의 구분이 없다는 점과 한정된 지면이라는 구조적 특징으로 인하여 전반적 지면에서 오너먼트를 사용한다. 또한, 한정된 지면에 기사, 사진, 칼럼,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가 위치하며 이를 분류하기 위하여 잡지에 비하여 비교적 다양한 오너먼트(장식 괘선, 사진의 장식 등)를 단순 장식이 아닌 기능적 측면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지면을 장식하여 인상을 부여하는 기능 외 더 다양하게 기능적으로 사용한 오너먼트의 모습을 수집·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매체 범위를 신문으로 한정하여 진행한다.

1) 유석환,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2013), p.17

2) 유석환, 「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p.28

2.2. 연구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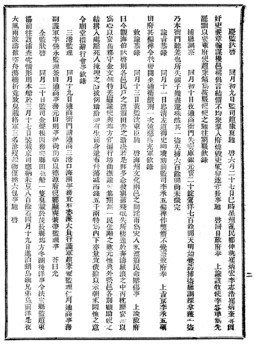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1876-1929년의 신문을 크게 세 가지 연구 대상으로 분류하여 수집 및 분석했다. 첫 번째가 『한성순보』(1883), 『한성주보』(1886)를 중심으로 한 국내 최초의 신문으로 시대 배경적 연구대상(1876-1890)이다. 두 번째는 1890년부터 1920년까지의 『황성신문』(1898), 『공립신보』(1905), 『경남일보』(1909)로 다양하고 화려한 오너먼트를 사용한 오너먼트 그 자체로 의미가 있던 연구 대상(1891-1919)이다. 세 번째는 1920-1929년까지의 『조선일보』(1920), 『동아일보』(1920)이다. 이 시기는 사진이 본격적으로 지면에 등장하며 이전 시기와 다르게 변화하는 오너먼트를 보여주는 연구 대상(1920-1929)이다. 물론 이 시기에 이 7가지 신문 외 다른 여러 신문이 존재하였지만 연구자가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의미가 있는 신문을 임의로 선정했다.

3. 한국 근대 신문에 나타난 오너먼트의 시작(1883-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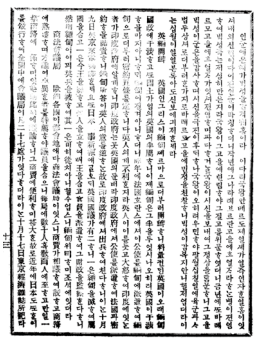
『한성순보』는 박문국에서 국민 대중의 계몽을 위하여 1883년 10월에 창간, 1884년 12월 박문국 사옥이 활자·인쇄시설 등이 불에 타버려 1년 만에 종간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3] 이후 1886년 1월 박문국에서 『한성순보』의 복간 형식으로 창간한 주간신문이 『한성주보』이다. 『한성주보』는 1888년 7월 박문국이 폐지되며 폐간한다.[4] 이 두 신문의 내지는[그림 1], [그림 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크게 다른 점이 없다. 다만 『한성주보』에서 츠키지 활판제조소에서 제작, 4호 활자로 알려진 한성체를 사용하여 국한문 혼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지와 다르게 표지(1면과 가장 마지막 면)은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의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한성순보』의 1면은 제호, 발행일 등의 정보를 본문보다 크게 배치한 뒤 단순한 선으로 정보를 분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성주보』의 1면은 [그림 4]를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제호와 발행호 정보를 지면 비율에 맞는 프레임 형식의 오너먼트 안쪽에 위치했다. 여기서 사용한 오너먼트가 연구자가

3) 한성순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1736, (202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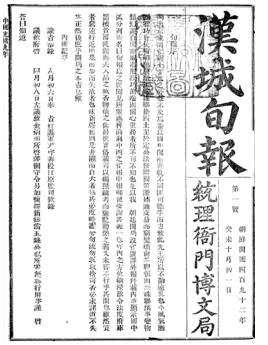
4) 한성주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1756, (2023.7.3.)



[그림 1] 한성순보
1883년 10월 31일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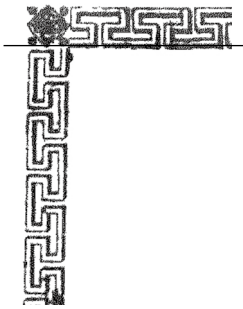


[그림 2] 한성주보
1886년 1월 25일 15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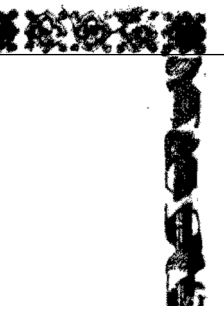
[그림 3] 한성순보
1883년 10월 31일 1면

[그림 4] 한성주보
1886년 1월 25일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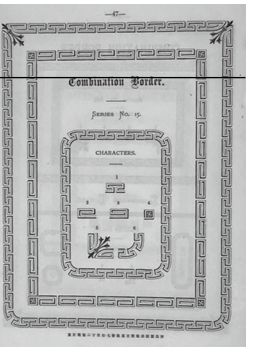


[그림 5] 한성주보
1886년 2월 1일 1면

[그림 6] 한성주보
1886년 3월 1일 1면



[그림 7] 한성주보
1888년 1월 23일 1면



[그림 8] 츠키지 활판제조소
샘플북 No.17, p47(18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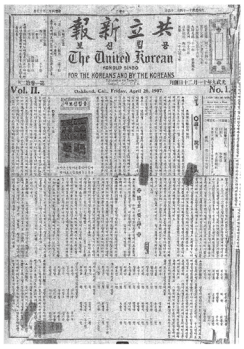
확인한 우리나라 근대 신문에서 처음 사용한 오너먼트이다. 이 외 확인할 수 있는 『한성주보』의 표지에 사용한 프레임 형식의 오너먼트는 [그림 5], [그림 6], [그림 7]의 3가지로, 『한성주보』는 표지에 이 3가지 오너먼트를 반복 사용했다.

프레임 오너먼트 외 『한성순보』와 『한성주보』에서 보여지는 타이포그래피는 기존 조선에서 보이는 세로쓰기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갑작스럽게 유입되는 서양 근대인쇄술에 타이포그래피적 변화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한성주보』의 표지에서 보이는 오너먼트로 이루어진 프레임은 기존 조선의 형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글 활자(한성체)를 츠키지 활판제조소에서 수입하였다는

[그림 9] 황성신문
1889년 9월 5일 1면

[그림 10] 황성신문
1889년 9월 5일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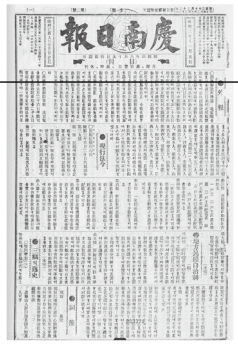
[그림 11] 황성신문
1889년 11월 9일 3면



[그림 12] 공립신보
1907년 4월 26일 1면

[그림 13] 공립신보
1907년 4월 26일 3면

[그림 14] 공립신보
1907년 5월 10일 3면



[그림 15] 경남일보
1909년 11월 5일 1면

[그림 16] 경남일보
1909년 11월 5일 3면

내용[5]으로 추측건대 글자 납활자뿐만 아니라 필요에 의해 몇몇 오너먼트 납활자도 수입하였을 것이고, 이는 [그림 5]에 사용한 프레임이 [그림 8] 1890년 츠키지 활판제조소 샘플북 No.17[6]의 오너먼트와 동일한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수입한 납활자 오너먼트를 통한 변화의 시도였지만, 이전 타이포그래피와 달리 새로운 시각 요소인 오너먼트가 표지 전면에 등장하는 의미 있는 시각 변화이다.

5)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타이포그래피사전』, (안그라픽스,2012), p.532

6) 츠키지 활판제조소 샘플북 No.17, bakumatsuya, https://www.bakumatsuya.com/shop-description.php?ID=1560172353&La=E, (2023.7.3.)

4. 다양한 오너먼트로 화려해지는 지면의 인상(1898-1920년)

『황성신문』은 1898년 9월 국민지식의 계발과 외세 침입에 대한 항쟁을 위해 창간한 일간 신문으로 1910년 8월까지 유지되었으며[7] 『한성주보』와 동일한 츠키지 4호 활자인 한성체를 사용했다.[8] 『공립신보』는 1905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포단체인 공립협회의 기관지로 창간한다. 초기에 활자를 갖추지 못해 손으로 필사해 석판인쇄를 하였고, 1907년 4월부터 활판으로 인쇄해 주간신문 형태로 발행한다. 이후 1909년 2월 공립협회가 국민회로 개편, 통합됨에 따라 『신한민보』로 바뀐다.[9] 『경남일보』는 1909년 10월 경상남도 진주에서 창간된 국내 최초의 지방 신문이며, 1914년 말까지 발행된 것으로 추측된다.[10] 이 세 신문은 모두 『한성순보』, 『한성주보』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9], [그림 12],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 『한성주보』와 다르게 표지에서 제호와 발행일 등 주보 신문 정보 외 기사와 같은 본문이 함께 있는 기본적 구성은 『한성순보』의 표지와 동일하다. 본문에서는 3단([그림 9], [그림 10] 황성신문), 4단([그림 12], [그림 13] 공립신보), 6단([그림 15], [그림 16] 경남일보) 그리드를 사용하여 길게 형성되는 글줄을 제한하고 있으며, [그림 11], [그림 14]처럼 •, ○, ◎와 같은 기호활자를 사용해 정보의 위계를 생성하여 글을 한층 읽기 편하게 하고 있다. 또한 [그림 12], [그림 13], [그림 16]과 같이 몇몇 제목 글자를 오너먼트 프레임으로 감싸서 강조해 주거나 서로 다른 글을 장식패선을 통해 분리해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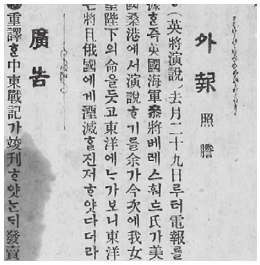
세 신문의 전반적 인상은 『한성순보』, 『한성주보』와 다르게

7) 황성신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5214, (202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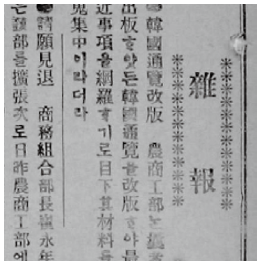
8) 박지훈, 「새 활자 시대 초기의 한글 활자에 대한 연구」, 『글짜씨』 3권 1호,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2011), pp.723-757, p.741

9) 공립신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4270, (2023.7.3.)

10) 경남일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2353, (202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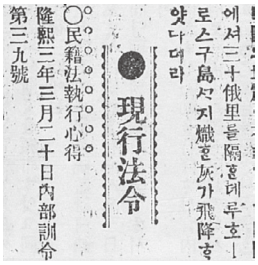


[그림 17] 황성신문
1899년 5월 4일 2면



[그림 18] 황성신문
1910년 8월 9일 3면

[그림 19] 공립신보
1907년 5월 10일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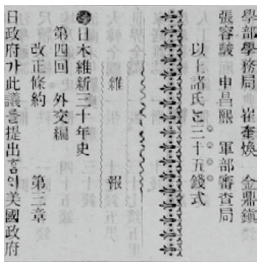
[그림 20] 경남일보
1909년 11월 5일 1면

[그림 21] 황성신문
1900년 11월 9일 3면

[그림 22] 공립신보
1907년 12월 13일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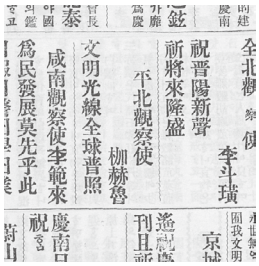
[그림 23] 공립신보
1909년 1월 13일 1면

[그림 24] 경남일보
1910년 1월 15일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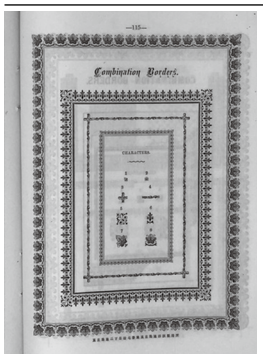
[그림 25] 황성신문
1906년 8월 24일 3면

[그림 26] 공립신보
1907년 12월 13일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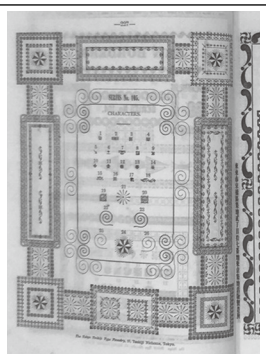


[그림 27] 경남일보
1909년 11월 5일 3면

[그림 28] 경남일보
1910년 1월 13일 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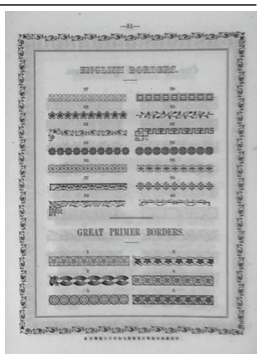


[그림 29] 츠키지 활판제조소
샘플북 No.17, p115(1890)



[그림 30] 츠키지 활판제조소
샘플북 No.17, p227(1890)

[그림 31] 츠키지 활판제조소
샘플북 No.17, p250(1890)



[그림 32] 츠키지 활판제조소
샘플북 No.17, p81(1890)

다양하고 화려한 오너먼트가 기능을 가지고 사용하여 비교적 화려하다. [그림 17], [그림 18], [그림 19], [그림 20]에서 보이듯 오너먼트가 제목을 장식해 본문과 다른 시각 위계를 형성한다.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와 같이 오너먼트로 프레임을 형성해 하나의 문단을 넣어 문단 자체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 중 [그림 21], [그림 22]와 같이 본문에 사용하는 기호활자를 반복적으로 배치해 프레임을 만드는 시도도 있고, [그림 23], [그림 24]와 같이 오너먼트 납활자를 통해 프레임이 형성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단을 나누며 강조하는 방법으로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 외에 장식괘선도 사용되기 시작한다. [그림 25]와 같이 다양한 장식괘선이 문단과 문단을 분리하며 제목과 본문을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림 26]처럼 장식괘선 옆 여백을 또 다른 오너먼트를 사용하여 괘선을 한 번 더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그림 27]의 간결한 물결 장식괘선부터 [그림 28]과 같이 마치 전통문양을 연상하는 장식괘선들을 볼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보이는 글자장식, 프레임, 장식괘선 오너먼트는 앞선 『한성주보』의 프레임과 같이 일본 혹은 서양의 납활자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였고, 츠키지 활판제조소의 샘플북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림 25] 가장 우측에 사용된 장식괘선은 [그림 29] 츠키지 활판제조소 샘플북 115쪽 중앙 프레임 오너먼트와 동일하다. 또한 [그림 30], [그림 31]과 같이 샘플북에는 프레임으로 이루어진 오너먼트 안에 글이 들어간 경우가 다수 있었고 이런 오너먼트 납활자의 활용 샘플은 [그림 18], [그림 20], [그림 23], [그림 24]와 같은 오너먼트와 글자의 조합 방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32]는 [그림 28]과 같은 화려한 장식괘선의 사용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비록 수입한 오너먼트 활자의 사용이지만, 이런 오너먼트의 다양한 사용은 앞선 1880년대와는 다르게 조판 과정에서 단순한 글자의 배치 외 다른 시각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 정도로 활판인쇄에 의한 제작 과정이 어느 정도 숙달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근대인쇄술에 대한 적응은 신문의 전반적 인상을 다양한 오너먼트를 통해 더욱 풍부하게 했다.

5. 사진과 변화하는 강조의 대상(1920-1930년)

1920년 3월 『조선일보』, 같은 해 4월 『동아일보』가 창간한다. 이 두 신문은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 여러 번의 정간을 당하였고 1940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강제 폐간되기도 했다. 그러나 두 신문은 계속 신문을 발행하였고 현재까지 남아있다. 이 시기의 신문은 앞선 두 시기의 신문과는 또 다른 인상을 부여한다. [그림 33], [그림 35]의 상단과

[그림 33] 조선일보
1920년 3월 5일 1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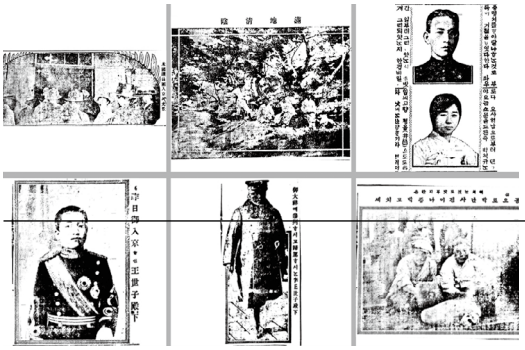
[그림 34] 조선일보
1920년 3월 5일 14면

[그림 35] 동아일보
1922년 1월 1일 1면

[그림 36] 동아일보
1925년 1월 25일 3면

[그림 37] 1920년대 조선일보 글자장식, 장식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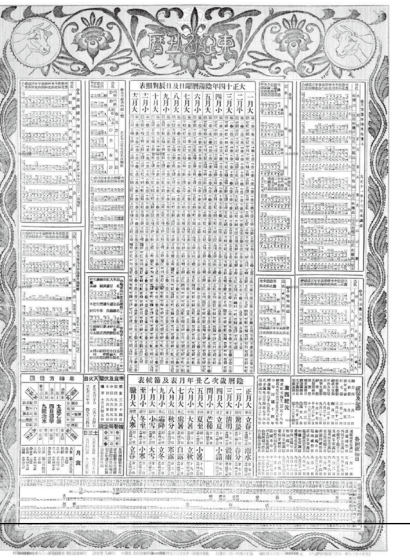
[그림 38] 1920년대 동아일보 글자장식, 장식쾌선



[그림 37] 1920년대 조선일보 글자장식, 장식쾌선

[그림 38] 1920년대 동아일보 글자장식, 장식쾌선

[그림 41] 동아일보 1921년 4월 1일 3면



[그림 42] 동아일보 1925년 1월 1일 29면

같이 명절이나 특별한 호일 경우 목판화를 통하여 신문별로 제작한 이미지가 실리게 된다. 또한 가장 큰 변화는 [그림 34], [그림 36]에서 볼 수 있는 사진이다. 당시 사진은 완전히 새로운 시각 요소이었다. 이전 시기의 신문에도 사진은 종종 보였지만 1920년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사용된다. 사진의 등장은 지면 내 강조의 대상을 바꾸게 된다. 『황성신문』, 『공립신보』, 『경남일보』에서 보이던 화려한 오너먼트는 점차 절제되며 강조되는 사진이 지면의 인상을 주도한다. 이에 따라 [그림 37], [그림 38]에 보이는 글자장식과 장식괘선이 이전 시대에 비하여 형태적으로 절제된다. 글자장식은 사각형, 삼각형, 원, 선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의 조합으로, 장식괘선은 선, 점선, 물결선과 같은 단순한 요소의 조합됨에 따라 일종의 시각 시스템을 갖추는 느낌이 든다. 글자장식과 장식괘선 오너먼트가 절제되는 반면 사진을 장식하는 오너먼트는 다양한 시도를 발견할 수 있다. 조금 중요한 사진의 경우 [그림 39], [그림 40]과 같이 사진 내에 장식을 그려 넣거나, 사람의 형태를 따라 사진을 자르고 주변에 장식적 요소를 그려 넣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네거티브 필름 작업 중 손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해 납활자나 목조각으로 인해 제한되던 표현 이상의 더욱 과감하고 다양한 시각 실험을 만들어 냈다. 또한, 1920년대 신문에는 내지의 한 면을 다 사용하는 특집페이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특집 페이지에서는 다른 오너먼트보다 더욱 세밀하고 과감한 오너먼트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림 41]의 過去一年間(과거일년간)의 人事(인사)에서는 1920년 주요한 세계 인사 23명의 사진을 더없이 화려한 오너먼트로 장식하고 있다.

[그림 42]는 東亞乙丑曆(동아을축역)에서는 1925년 달력을 식물형태의 곡선형 프레임 오너먼트로 장식하는 등 오너먼트의 사용을 더욱 과감하게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 내지에서 보이는 오너먼트의 인상은 글자장식, 장식괘선과 같이 형태가 점차 단순해지고 그나마 다양한 시도를 하던 사진 장식 오너먼트 역시 신문에 대한 일제의 탄압 때문인지 1920년대 후반이 이를수록 점차 단순해지기 시작한다.

6. 근대 신문의 오너먼트와 그 가치

1880년대 『한성순보』와 『한성주보』는 납활자를 통하여 한글을 인쇄하는 것만으로 놀라운 시기였다. 이를 성공적으로 해내며 등장한 『한성주보』의 표지 속 프레임 오너먼트는 우리나라 신문 최초의 시각 시도이며 도전이다. 이후 1890~1910년대는 한글의 활판인쇄가 안정화되며 제목 혹은 문단을 강조하는 다양한 오너먼트로 지면의 인상을 부여하는 것이 다른 신문과의 차별점이었으며 기술력이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각 신문은 더욱 다양한 오너먼트를 시도하였을 것이며 이는 결국 이 시기의 신문의 인상을 화려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1920년대 사진이 본격적으로 사용되며 강조의 대상이 글자에서 사진으로 이동한다. 사진은 그 어떤 시각 요소보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였으며 빠르게 제작, 인쇄가 가능했다. 이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다뤄야 하는 신문이라는 매체의 특성과도 맞아떨어지며 자연스럽게 신문 내 강조의 대상은 글자와 오너먼트에서 사진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다. 비록 1930년대부터 민족 말살 통치로 수많은 신문이 폐간되고 인쇄물에 대한 탄압이 극심해지는 등 오너먼트의 사용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오늘날 이런 화려한 오너먼트가 유지되진 못했다. 그러나 1983년 『한성순보』 창간부터 1920년대까지 우리 신문에 사용된 오너먼트는 대규모 서양 근대인쇄술의 유입 속에서 새로운 우리 시각문화를 만들려 했던 선배들의 실험이자 도전으로 이를 수집하고 기록함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생각한다.

참고문헌

— 경남일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2353, (2023.7.3.)
— 공립신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4270, (2023.7.3.)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네이버,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naver, (2023.7.3.)
—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국립중앙도서관, https://nl.go.kr/newspaper/index.do, (2023.7.3.)
— 박지훈,「재 활자 시대 초기의 한글 활자에 대한 연구」,『글짜씨』3권 1호,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 2011), pp.723-757
— 유석환,「근대 문학시장의 형성과 신문·잡지의 역할」,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학교, 2013)
— 츠키지 활판제조소 샘플북 No.17, bakumatsuya, https://www.bakumatsuya.com/shop-description.php?ID=1560172353&La=E, (2023.7.3.)
— 한성순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1736, (2023.7.3.)
— 한성주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1756, (2023.7.3.)
— 한국타이포그라피학회,『타이포그래피사전』, (안그라픽스, 2012)
— 황성신문,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5214, (2023.7.3.)